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다문화전담팀

전남도교육청 다문화 학생 1만명 시대 교육지원 강화 하기로 다문화교육센터 캠프·체험활동 확대...관련 예산은 소폭 줄어

다문화 학생 1만명 시대에 맞춰 전남도 교육청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 교육지원책을 강화한다.

전남도교육청은 12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설치 예정인 학교지원센터에 다문화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봄 여수에 개원한 전남국제교육원에 자리 잡은 전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원 연수 및 학생 체험활동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신설된 전남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 예산 9억원을 신규 투입해 부모나 방문 프로젝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캠프, 유치원·초중고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체험교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예비학교, 찾아가는 예비학교, 다문화 유치원 운영 등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사업도 실정에 맞게 내실화하거나 사업 대상 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다문화 학생 증가 추세와 지원 강화 방침과는 달리 관련 예산은 소폭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되면서 다문화 교육정책 강화에 일부 의문도 제기된다. 도교육청이 최근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다문화 교육관련 예산은 전년도 24억원보다 10%가량 줄어든 21억원 수준으로 편성되면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 교육사업 관련예산이 올해 24억원 수준에서 21억원 규모로 소폭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교운영비로 9억원이 추가 지원되는 만큼 전체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 올 초 발간한 '전남 다문화교육 실태 분석'에 따르면, 전남 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관련 사업 예산은 2014년 12억원, 2015년 11억원, 2016년 23억원, 2017년 26억원 규모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 4월 기준, 전남 다문화 학생은 유치원 1192명, 초등학교 695명, 중학교 1377명, 고등학교 1099명, 특수학교 26명 등 모두 9789명이다. 지난 2015년 7238명, 2016년 8320명, 지난해 9169명 등 추세를 보면 조만간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학생 재학 학교는 유치원 398곳, 초등학교 424곳, 중학교 220곳, 고교 133곳, 특수학교 6곳이다.

부모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696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1898명), 중국(1741명), 일본(103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별 다문화 학생 규모는 순천 907명, 여수 863명, 나주 753명, 목포 698명, 광양 642명, 화순 530명 등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도로 열면 뿌리세요”...모래주머니 배치 12일 광주 북구청 건설과 도로팀 직원들이 동절기 도로 결빙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매곡동 인근 도로변 경사로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있다. 북구는 1만 개 이상의 모래주머니를 제작, 미끄럼 사고 등 위험구간 곳곳에 모래주머니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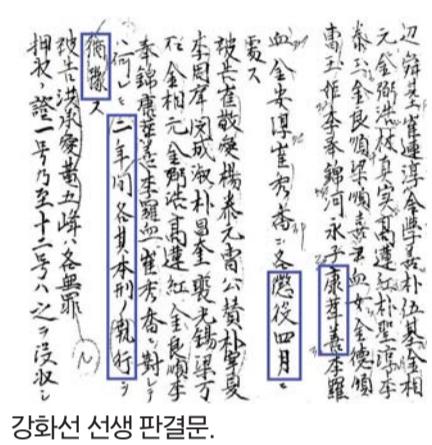
15세에 3·1만세운동 참여...광주 출신 강화선 선생 전국 최연소 여성독립운동가 정부 포상

광주 3·1만세운동에 참여한 남구 양림동 출신 고(故) 강화선(여·당시 15세) 선생이 최연소 독립운동가라는 이름을 올린다.

12일 남구와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강화선 선생은 오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독립운동가 포상(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강 선생은 당시 수피아여자학교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0일 오후 3시에 동구 불로동과 남구 사동을 잇는 부동교 아래 장터에서 열린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김강, 김철, 홍순남 선생과 함께 일제에 체포돼 대구 복심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오는 17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리는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강 선생과 경남 하동 출신 조



강화선 선생 판결문. 북구-김계정 선생(각 건국훈장) 등 여성 독립운동가 3명에 대해 추서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경찰 수능 당일 특별 교통 관리...119는 이송서비스

경찰과 소방서가 수능 수험생 특별 지원에 나선다.

광주·전남지방경찰청은 12일 "2019 대학수학능력 시험날(15일) 인원 1041명, 순찰차 등 291대를 투입해 수송지원, 특별 교통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은 38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2만 3500명이 응시한다. 광주경찰청은 경찰관·모범운전자회 등 463명, 순찰차·경찰오토바이 등 81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47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1만 7730명이 수능을 치르는 전남지역은 경찰·모범운전자회 등 578명과 순찰차 등 138대가 배치된다.

시험장을 착각하거나 입실시간에 임박해 입실하지 못한 수험생은 112에 신고하

면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험장 시험장 반경 2km 이내 간선도로는 오전 6시부터 경찰과 자치단체가 불법 주차·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교통관리에 들어간다. 등기평가 시간대(3교시, 오후 1시10~35분)에는 시험장 주변 통과 차량에 대한 경적사용 자제를 당부하고 화물차량 등 소음을 유발하는 차량은 우회를 유도한다.

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119 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15일까지 119 또는 가까운 소방서로 전화 예약하면 시험 시작·종료시 119급차가 시험장 이송을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5 달뜨기 11:48
해질 17:28 달지기 22:04

감기 조심하세요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비오는 곳 있겠다.

광주	맑음	4/15	보성	맑음	1/15
목포	맑음	6/15	순천	구름많음	6/17
여수	구름많음	9/16	영광	맑음	2/14
나주	맑음	1/16	진도	맑음	4/14
완도	맑음	7/16	전주	맑음	4/15
구례	구름많음	2/16	군산	맑음	4/14
강진	맑음	3/16	남원	맑음	2/15
해남	맑음	1/15	흑산도	맑음	11/14
장성	맑음	2/1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부	면바다	북~북동	1.0~2.0	북~북동	1.0~2.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서부	면바다(동)	북~북동	1.0~1.5	북~북동	1.0~2.0
	면바다(서)	북서~북	1.0~2.0	북서~북	1.0~1.5

◇생활지수

보통	뇌졸중	보통	감기	보통	미세먼지
----	-----	----	----	----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0:20	05:06
	23:12	17:54
여수	05:32	12:20
	18:37	--:--

◇주간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	☀	☁	☁	☁	☀	☀
5/16	5/17	7/16	8/14	5/13	4/12	2/12

학생 성추행 혐의 광주 모 고교 교장 해임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광주 모 고교 교장이 해임됐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법인은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장 A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학교법인 측은 전했다.

학교법인 측은 이르면 이달 말 새로운 교장을 임명하고 학교 정상화에 나설 것

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교장으로 있으면서 "명찰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며 가슴을 찌르는 등 학생들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최근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0시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등록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완도해경, 김 양식 무기산 사용 특별 단속

완도해양경찰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한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완도를 중심으로 매년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무기산 사용은 작업 속도가 빠르고 생산성도 좋다는 이유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무기산은 산 농도가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물에 잘 녹

지 않아 해양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해경은 김 출하시기에 맞춰 1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행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중징 단속대상은 ▲무기산 불법 사용·폐용기 ▲해상투기 행위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유통·보관 행위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등이다.

/완도=정은조 기자 ejhung@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50KW급 매월 150만원 수익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 영암, 완도, 진도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1566-9988

돈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돈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9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노안양빌딩

신세계안과 옛, 밝은광주안과